

민주노조 사수!  
노동탄압 중단!  
비정규직 철폐!

2015.6.15 월요일

## 영결식 10:00 광양시청사거리 시민분향소

민중의례  
약력보고  
조사 1  
조사 2  
조무  
조사 3  
조사 4  
조시  
조가  
편지낭독  
유족인사  
호상인사  
헌화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강용재	광양지역문제연구소장
오현숙	신명 대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김해화	
서광석	
허형길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양효성	
정용식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 양우권

## 노동열사 민주노동자장

## 노제 12:10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앞

목념  
약력보고  
조사  
호상인사  
헌화  
상징의식

심종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정용식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 하관식 15:50 경남 남해 추모누리 공설종합묘원

평토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조사	양효성	
유족인사	정용식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호상인사		
헌화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살안기업 포스코·이차테크 규탄! 비정규직 철폐! 양우권 노동열사 투쟁대책위원회  
故양우권 노동자 포스코/이차테크 인권유린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 열사 소개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

민주노총 그리고 금속노조 조합원동지 여러분 용기있지 마시고 힘내어 가열차게 투쟁하여 저 간악한 정권과 자본을 무너뜨리고 꼭 승리하십시오. 강력한 연대와 단결로 투쟁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 양동운 지회장. 그리고 동지 여러분 소수의 조합원 이라도. 정예의 조합원들 아납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양동운 지회장을 위시하여 푹푹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문제 꼭 승리하십시오 멀리서 하늘에서 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화장하여 제철소 1문앞에 뿌려 주십시오.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곳 그렇게 가고싶었던곳. 날아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볼립니다.

## 양우권 노동열사 약력

1966.5.17(음) 경남 남해 출생 (49세)  
1998.2.5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주)EG테크 입사  
2006.12.23 EG테크지회 설립 / 조합원  
2008~2010.4 광양지역지회 재의부장  
2010.5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장  
2015.5.9 EG그룹 체육행사에서 “노조탄압 중단” 선전  
2010.5.10 7시40분경 유서 4장을 남기고 목숨으로 항거  
가족 부인 하현희, 자녀 효성 주원

## 양우권 노동열사 투쟁 경과

5.10 살인기업 포스코 · 이지테크 규탄! 비정규직 철폐! 양우권 노동열사 투쟁대책위원회 결성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5.11 양우권 노동열사 정신계승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5.12 살인기업 포스코 · EG테크 규탄! 비정규직 철폐! 양우권 열사정신계승 투쟁승리 1차 결의대회 포스코 · EG테크에 특별교섭 요구안 전달

- 포스코와 EG테크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책임 인정과 사죄
- 노동탄압 중단 및 재발 방지 약속
- 불법파견 중단 및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 산업재해 인정 및 유가족 배상

광양시청사거리 시민분향소 촛불문화제 시작

5.13 포스코 교섭 참여 촉구 광양제철소 본부 앞 집회

5.15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상경 투쟁

5.20 故양우권 노동자 포스코/이지테크 인권유린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

5.21 양우권 열사정신계승 2차 결의대회

6.3 양우권 · 배재형 열사정신계승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6.9 유족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집단식발, 단식농성 돌입

6.13 노조 · 유가족 (주)EG테크와 합의

### 박지만에게

한마디로 당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소. 당신은 기업가로서의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요. 당신이 기업을 아시오? 당신이 알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소. 천만의 말씀올시다. 당신은 EG그룹의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예전같이 양아치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요. 그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의 결실이 없었으면 지금의 당신은 없소. 당신의 젊었을때부터 지금까지의 추악하고 더러운 악행 내가 모르는줄 아시오. 당신에 관련된 책들 많이 읽었소. 그리고 당신에 대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이 두귀로 다 들었고, 듣고있소. 천벌받아 마땅할 것이요. 지금 당신의 회사 현장에서는 당신의 자식들과도 같은 수 많은 노동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Roaster 주위에서 위험한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소. 당신은 그것을 알거나 하시오. 자식들 같은 직원들이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때. 당신은 호의호식하며 지냈을 것이요. 이제라도 늦지 않소. 권력 앞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제발 당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진정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 주시오.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요. 내가 하늘에서 두눈 부릅뜨고 내려다 볼 것이요.



[조사]

# 이제 우리가 투쟁하겠습니다

전규석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목숨을 걸고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했던 양우권 열사여. '인간답게 살고 싶다, 차별을 중단하라'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요구를 하며 노조에 가입한 지 10년, 양우권 열사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욕과 탄압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민주노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G테크분회 마지막 한 명의 조합원으로 남았던 시간은 그렇게도 노조를 지키고 싶어 했던 열사를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악질자본 포스코와 EG테크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 자리에서 일하고 싶다는 양우권 열사의 절박한 호소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양우권 열사의 죽음은 포스코를 비롯한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다시 알렸습니다. 몇 십 년을 일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비참하게 겪어야 했던 차별, 노예의 삶을 끝장내고자 노동조합을 선택하면 징계, 해고, 인권유린을 겪어야 했습니다. 양우권 열사여, 새들의 먹이가 돼서라도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제철소에 열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함께 갑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열사는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홀로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키겠습니다. 열사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과 실천으로 남은 자로서 부끄러움을 떨치겠습니다. 열사는 자본의 노예로서 살기를 거부하고 당당한 노동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강력한 연대와 단결을 당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간악한 자본과 정권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후손에 물려주자는 간절한 바람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해 싸우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권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노동조합마저 지킬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제 우리가 투쟁하겠습니다. 양우권 열사여, 외롭고 서러운 세상을 떠나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조사]

# 부디 편히 쉬시오 동지여

민점기 |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열사는 평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빛내지 않았고 모양꾸며 얼굴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협박과 회유 해고 탄압에 맞서 싸울 땐 독수리의 발톱 사자의 이빨 바위로 험한 산과 같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용맹한 동지 정의로운 용사를 잃었습니다. 저들의 악행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자비한 탄압과 인권유린에 앞장선 자들,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은 분명코 이곳 광양 땅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열사는 정직한 노동자였고 선량한 민주시민이었습니다. “효” “근본” “진실” “겸손” 이런 뜻을 아들 딸 두 손주 이름자에 새긴 사람입니다. 돈과 승진의 회유 앞에서 무릎꿇지 않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노조를, 동료 조합원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온갖 탄압과 악행을 저지른 박지만 회장에게 마저 “제발 당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진정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당부했던 사람... 이토록 선량한 민주시민 정직한 노동자를 우리 이제 떠나보내니까 어제 밤 열사가 마지막 밤을 보낸 가야산에 갑니다. “그렇게 외로웠느냐고, 힘들었느냐고, 아팠느냐고... 말을 하지 이사람아, 고통도 치고 먹살도 잡고... 나 힘들고 외롭다고 죽도록 아프다고 외치지 이사람아” 하고 원망하다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밤새워 동지가 거닐었을 산책길을 걷다 걷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동지는 우뚝한 산 의로운 산이 되었습니다. 남해바다 세찬 파도로 우리들 가슴 속에 물결칩니다. 부활의 파랑새가 되어 선량한 시민들 정직하고 의로운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권동지, 이제 편히쉬시게나. 그래도 뻘뻘머리 밀고 단식까지 결행한 사내하청 동지들 현장복귀 투쟁에는 같이 하셔야제? 슈퍼갑질로 지역을 분탕질하고 노동자들과 괴롭히는 포스코의 잘못 그 악행은 바로 잡아야제? 함께 해주시오 우권동지, 든든하게 중심잡아주시네 아내 하현희 동지, 아들 효성군 딸 주원양 동지의 뜻 잘 실천하고 이렇게 우뚝 서있네 잘 지켜주시게. 동지가 좋아했던 글. “바람이 없으면 천치간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이슬이 없는 곳에는 열매도 볼 수 없다”는 글 다시 새기네. 투쟁의 불꽃 일으켜 가까이 바람이 된 동지. 승리의 열매 맺으려 가까이 이슬이 되어준 동지 본받아 우리 강력한 연대와 단결 투쟁의 폭풍우가 되고 태풍이 되어 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의 안정적인 현장복귀를 책임지겠오. 부디 편히 쉬시오 동지여!!!

[조사]

# 시대의 작은 예수

강용재 | 광양지역문제연구소장

시대의 작은 예수故양우권 노동형제를 보내며.故양우권형제가 접하고 간 사회는 참 정의롭지 못했습니다.故양우권형제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땀 흘려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가치를 평가받고 인정받고 인정해주기를 바랐으며 누구보다도 일과 직장 동료들 아끼고 사랑했었다는 것을 형제의 유서와 알기장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추구에만 급급해하는 경영진들의 왜곡된 노무관은 이성적 인간성마저도 저버리고 인격말살과 인권유린을 아무런 죄책감도 죄의식도 없이 장장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것에 고개가 숙여집니다.故양우권 노동형제는 대법원에서까지(주)이지테크의 부당해고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탄압에 의해 2011년부터 3년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故양우권형제는 복직판결을 받고 2014년5월11일부터 출근을 했지만 작업현장이 아닌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사무실 구석 벽 쪽에 책상을 놓아 200일이 넘게 벽만을 바라보고 있도록 했고 사무직원들에게 말도 걸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도록 지시하고 더 나아가 대표이사는 교육평가를 한다고 부서팀장들과 둘러앉아 괜한 말꼬리를 잡아 인격적 모멸감과 의도적 면박을 일삼는 그 하루하루가故양우권노동형제는 어떤 심장이었겠습니까? 인권유린과 탄압배후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조직안정평가라는 조항을 두고 외주파트너사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故양우권형제는 비정규직이 처해있는 비참한 현실에 자신을 던져 희생함으로 개선시키고 인면수심에 병든 사회를 정의사회로 구하고자하는 구원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故양우권형제는 남아있는 형제들의 몫으로 부타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지역시민운동 원로로서 부끄럽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감시자에 역할을 자임하는 지역시민사회가 빛과 소금이란 본연에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 고인과 유족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故양우권형제에 뜻 외면하지 않고 비정규직문제를 넘어 노동, 환경, 사회 전반에 조명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나아가는 일에 형제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호상인사]

# 형님의 자리 비워 놓겠습니다

우기준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좁은 책상과 머리위의 감시카메라 앞에서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힘든 생활. 출근하면 어느누구도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 직원들. 혼자 밥을 먹어야 하고 직원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는 하루하루의 연속. 출근하자마자 퇴근시간을 기다리는 그 처절한 마음. 미안합니다. 알기장을 보고 형님의 고통과 아픔을 뒤늦게 알게 되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의 가나긴 사투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들의 악랄한 노동탄압, 비인간적 행위, 법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범죄자들. 이제는 우리가 상대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저희가 투쟁해서 형님의 염원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철문 앞에서 조합원 동지들과 선전전을 진행하면 그 아픈던 머리도 상쾌해 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알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의 자리는 언제든지 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상쾌함을 느껴보시고, 행복함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형님의 연대를 가슴으로 느끼며 투쟁하겠습니다. 형님,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차별이 없는 세상. 탄압이 없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장례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

호상

고문

장례위원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강용재 광양지역문제연구소장, 이영민 광양YMCA 이사장  
심종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윤부식 민주노총 전남본부 사무처장, 박종완 민주노총 광양시지부장,  
강필성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김진환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  
박성택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  
양동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서창호 전남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강석태 범시민대책위 고문

열사장례위원회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전규석 남문우 홍지옥 조성옥 서쌍용 이현수 강두순 김만태 이경자 윤옥동 전규전 신철섭 정진홍 심종섭 김준일 채창식 조민재 문영만 서다윗 최영규  
무대선 정동훈 정현영 이진락 이병수 김중석 정종환 김득중 이영훈 최윤성 윤종선 김병진 김혁 배현철 조영미 신동준 나정원 박세민 (광주전남지부) 윤철호 채규환 황형수 권오산  
오승재 류인근 (광주지역금속지회) 박성진 박형열 오미령 임정수 임홍석 노소운 (금호타이어지회) 허용대 최준석 설평주 박용순 김인호 박영준 김경호 김경남 김준식 김영호  
이재일 임상록 최석균 남덕후 정호 지승철 김성의 이정현 임성진 장인철 조철규 남덕현 박용택 김종열 이민성 김승범 이상배 이종재 이정훈 박철홍 정해수 손민균 최준식 변용기  
강성진 고재성 박옥렬 김규석 김봉갑 김상국 김진진 김성복 김수환 김용삼 김용이 김장기 김주원 김창섭 김하수 김형기 나우상 류관중 류석현 박관관 박재운 박원환 배병국  
배현주 서용식 서정민 손기홍 손석원 심현진 안대환 윤종세 이광수 이완수 이완열 이재일 이종대 이준연 임경훈 임길택 임영기 임용장 장갑곤 정우열 정종호 정희훈 최준호  
최병관 황용필 최성민 최남식 문종길 김태호 신장일 손영철 장성수 김준환 오용 김정영 김진오 박용철 박재록 정승영 임동석 최용규 김하근 정기훈 최준호  
홍은석 전용현 김용재 조현주 박영식 유동식 김성현 문병용 김성인 박기철 구양 강경호 김경식 김경오 김광수 김대건 김병은 김상수 김상엽 김석호 김영준 김재기 김준규 김종일  
김준수 김대성 김용진 나철성 노병술 노영남 문종길 박근재 박종수 박성혁 박유열 박진태 박영인 백지용 서용수 손동구 심우열 양정남 윤문상 윤삼근 이기성 이기태 이영대  
이재수 장덕수 정영민 정원철 정갑일 최광일 최백희 (금호타이어금속지회) 신현곤 서경일 노기동 김자은 이정택 홍태서 김성조 박철우 기형진 김선주 윤여옥 강은석 김동민 김준호  
노점기 박연수 박요환 박찬순 박철 신평래 안재현 장명문 (동일관광지회) 최원국 강계동 선종현 김태식 박승길 김희석 김선귀 이진희 (디에스시광주지회) 최경호 유영남 최선웅  
임도형 황대식 김형영 박상범 조영훈 조진희 (미주제강지회) 박정규 박한오 김중원 송태규 김대영 박정우 (보원테크코리아지회) 정태욱 김용상 (비엔비상원지회) 이대성 류정호  
이상필 위성준 김상현 한승헌 정선중 (ATK광주지회) 윤미선 서자 고미정 문세훈 김인영 윤희옥 백현주 김인옥 이현미 (전남서남지회지회) 장문규 조기형 최국진  
(케이에어지회지회) 이현식 박복식 이강우 과원식 정종록 최갑철 김중상 문영창 조조훈 박찬용 김철수 김중도 문병환 조봉환 김대희 조준환 이병주 김준희 김재완  
류사현 서민석 신주홍 유상근 이광재 정종하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동은 우기준 양원근 정용식 황태환 이기연 최문수 장홍진 홍영호 정창길 이상철 안지훈 배현진 서재원  
김재식 손준석 이도근 정종록 최성진 김경기 정창길 장종진 이영근 권대경 하태도 윤동찬 서대기 고영훈 안남현 박진성 권승민 백성일 한정영 이재갑 이백근 (한국쓰리엠지회)  
박근서 박광민 김희봉 전호민 이관오 안진용 강남길 주병무 김태강 정우현 유선호 허태성 최영준 임동록 임만국 하관래 나은주 김승록 김진권 황종진 손선식 이미숙 최경아  
노규수 배승호 김성록 조창현 진진수 이경호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신은식 서인문 김희태 임영하 김성진 장제인 김용갑 이종갑 강성길 강종석 공동문 김경민 김경주 김대문  
김대복 김도남 김성연 김만용 김명옥 김상운 김성용 김영국 김경호 김주현 김진석 김철호 김한구 김한호 김형준 류성일 류승현 류호연 문병원 문종석 박길배 박영은 박인호  
박종훈 박철현 배종현 배종철 서용석 오창현 위재광 유민봉 유영창 이경중 이광희 이동태 이병기 이병범 이준홍 임창근 임종호 장현국 전봉석 정은호 정대국 조석환 조용우  
최병인 홍승용 박종은 배법민 김태우 김종화 이영진 오완주 김상명 박명규 선종필 이도원 장영종 최봉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구희수 정경진 최현태 장영기 오상민 조광훈  
박정민 김장민 심상찬 장원모 이병용 정진우 김필량 김홍주 (기아차광주지회) 이기근 이병철 변진식 박지일 조은영 김용일 안민수 김상현 오형관 박기철 박상모 선범준 송병호  
김민석 양성주 정영철 나현구 이석호 권현진 주영옥 이용우 박재일 문봉태 윤영선 윤영진 최훈 김학주 (기아차정비광주지회) 신광희 (기아차정비광주지회) 최현태 장영기 오상민 조광훈  
(한국지엠정비부품광주지회) 김동룡 (현대차정비광주지회) 류승필 (현대차정비순천지회) 진현철 (현대차정비광주전남지회) 신정호 (풍기노조광주지부) 오학필

[민주노총] (중앙) 한상균 최경진 이영주 김두순 이상진 김준인 정혜경 김경자 (전남본부) 민점기 신성남 윤부식 장중익 박주승 최진호 김인경 김재진 황광민 김환석 김병주 문인용  
(광양지부) (순천지부) (여수지부) (나주시지부) (목포신안지부) (영암군지부) (화순군지부) (강원본부) 유재훈 이규산 박정선 김호민 김원대 신영근 김주현 (광주본부) 박형주  
박영수 정형택 김미화 고미경 이재광 최종덕 전태홍 안영석 오원종 박동일 김중주 한연일 강승환 김진오 이승철 (경남본부) 김재명 류조환 김진호 진창호 박현철 전희영  
(경북본부) 김태영 정태철 황옥수 김우식 (대구본부) 임성열 이재식 박대현 박은은 임보남 권복호 (대전본부) 이대식 이강진 김윤현 (부산본부) 김재하 이태환 최승환 박용대  
(서울본부) 서영석 장석주 송호조 박영찬 이병호 김현 (세종충남본부) 유희중 안성환 정찬용 권오대 문용민 (울산본부) 강성진 이재희 김중희 (인천본부) 김창근 박홍순 강원희  
정소영 (전북본부) 윤종광 박두영 김동규 서영우 안현석 최재준 전승진 이상석 (제주본부) 양지호 김태중 문도선 (충북본부) 천원일 이정순 김용석 최기호 [건설산업연맹] 이윤대  
홍순관 이종화 오희태 김근주 이영철 서원희 정민호 정부주 민정옥 김성환 구대신 유희숙 박영찬 좌철석 김재우 강상규 이기세 이은정 김병민 이상원 (건설노조  
광주전남지회) (건설노조 타워본과 광주전남지부) (타워본부지회) (건설노조 전남동부지역크레인지회) (건설노조 전남동부 투목건축지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본부지부)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광양지회) (건설노조 전남동부기계지회) (공공운수노조) 강용준 고희환 고양근 구권서 김경화  
김기태 김덕춘 김미경 김세동 김애란 김영곤 김영훈 김윤기 손자기 김진혁 김철은 김대영 김태우 김현상 나동업 박대성 박배일 박상길 박원호 박재식 박준형 박철휘 석병수 손동진  
신창선 신현규 안명자 연진수 유두현 윤정일 이근일 이봉주 이상우 이상준 이은진 이우진 이의용 이인하 이재문 이정현 이태희 이혜중 장성기 정두택 정춘용 조상수 조성택 진기영  
최보희 최준식 한경국 한길동 현지영 홍명수 황재도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서해지부  
광양지회) (공공운수노조 KT제노조) 정교순 (KC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이형설 정길재 박종민 조민영 신세민 신화준 강창용 서정숙 윤용갑 김두미 김영훈 이상원 권태준 권찬우  
노정석 정보은 이세진 김도영 안혜란 유완영 이재광 조창현 이기태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 (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 (공무원노조 공성군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구례군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무안군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순천시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여수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해남군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신안군지부) (교수노조) 노경주 홍성하 이재용 배성인 강남훈 유병재 [대학노조] 주영재 김동욱 김재년 유양훈 이계원 백석기 진광재 박용기 박용준 마상진 김성환  
박정호 손창원 홍성민 신준하 [민주일반연맹] 전순영 김주식 신영국 정영진 천형철 이상진 김경복 김석길 (민주일반연맹 전남본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최권용 정해진 박노봉  
한용문 박민수 한미정 김성국 백소영 정복은 이준용 김성남 이봉우 박정원 전종택 윤영국 염기용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회)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성기의료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순천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순천병원지부) [비정규직노조] 임승관 권정택 박종원 이강복 최원일 이용일  
이상록 홍영경 [사무직공무원연맹] 이윤정 나동훈 이형철 마하운 손영철 김원영 김명근 김호정 이문수 박영숙 현희숙 [서비스연맹] 강규혁 강진명 박용규 이민욱 김성원 이영욱  
[언론노조] 김환관 김동훈 권오준 조동희 채수현 김진호 서준영 홍정배 안성용 김한기 이은서 (언론노조광주) [여성연맹] 이진배 최정숙 이현선 장연하 도선자 심규희 문종애  
이은희 최금연 과학속 법철속 한옥서 [전교조] 변석호 박옥주 김재식 김용섭 노병설 이혜재 신성호 김원만 최창식 송영기 김명도 손호만 지창배 정한철 이상대 권경오 최정민  
조창익 윤성호 김영민 김중선 이상용 정성홍 이용기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고희환) (전교조 광양초등지회) (전교조 광양중등지회) (전교조 순천사립지회) (전교조  
순천중등지회) (전교조 보성지회) (전교조 신안지회) (전교조 영암지회) (전교조 목포초등지회) [화학생업연맹] 신환설 신규철 임영국 최정호 김광 김구상 서진상 장중수 한상훈  
문경주 나상대 (화학생업 광주전남본부) (화학생조 전남지부) (LG Chem 노동조합) (화학생업 대한시멘트노조) (화학생조 여천NCC지회) [공공비정규직노조 광양지회]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영광지회]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곡성지회]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여수지회]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청소구역지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지부] [홀러스노동조합 순천시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광양지회] [순천농협 노동조합] [제오빌더  
노동조합]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전남청소년 노동인권 가사단] [광양지역문제연구소] [광양YMCA]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민환경포럼] [순천YMCA] [순천청년연대] [좋은친구들] [순천여성회]  
[민주민생총연합회]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좋은사모회]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전남동부지역사회연대] [순천인물협회] [호남철도협동조합]  
[놀이매드유저리] [사시사찰사랑] [생활참여18번지]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순천615통일합창단] [이정순예술사모모임] [여수진보연대]  
[민주민생여수행동]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여성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여수일과복지연대] [노동당전남도당] [정의당전남도당]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광주전남연맹] [건강사회를위한차과사회전남동부지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광양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종호 배영일 김정태 서광석 박형배 박춘섭 송지자 이상수 정일태 김상기 000 [광양만북색연한]  
정용성 박수환 [민주민생광양행동] 백성호 장종환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박영식 김금순 주미영 박미현 김미순 이연진 [광양교육희망연대] 강필성 이희정 [광양Coop생협]  
조영미 김진영 [여수일과복지지회] 김갑수 주종섭 [건강사회를위한차과사회전남동부지회] 김용주 주동욱 [노동당전남도당] 김철용 양현주 최순재 홍길순 임성주 이석복 강경남  
유영창 박희선 [노동당광주지부] 박재현 [정의당전남도당] 윤소하 박명기 박기철 서기룡 여두원 위수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신대운 김태성 [전남진보연대] 문경식 이재인  
유현주 오용은 김진동 [전남교육희망연대] 이형진 오정교 정홍관 손순용 유재삼 문은아 박진홍 김재현 이서 장우광 박정연 이정근 김진희 박상규 구시선 김현우 이경자 박상옥  
[민주민생청년행동] 이상수 오미화 백남수 신성남 정오근 김성일 최미희 백성호 심훈희 이옥진 고재건 나철원 장영진 김기철 안주용 고선희 박성수 이종환 김창민 신양식 최순옥  
김영선 이정화 김창주 정우태 김현근 권용식 김진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광주전남연맹] 김순애 남임 한학수 정영이 정영희 최복희 정구자 송형숙 장만덕 김양성 최홍희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김재우 김영동 안주용 이갑성 박행태 이석하 정이연 이문혜 이문태 고재건 박정환 이광수 이종희 윤병술 박필수 채성석 권용식 김경선 송호철  
한완식 위두환 마광호 서정대 이동복 팔길진 성하복 이부진 정은자 마상진 정성철 임채경 고광길 이동환 이재복 김시원 오호영 오종록 나홍신 박종섭 김재주 [김준배 열사  
정신계승사업회] [박승희 정신계승사업회] 공평석 오창규 부주현 강인철 부연석 [박종태 열사 추모사업회]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정광문 의장 추모사업회] 문경식 문영미 민점기  
박행태 오덕훈 유준주 장규기 장지연 이영규 이석하 [김철수 열사 추모사업회] 임지석 김중훈 김백수 한현우 김승록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박태연 열사  
정신계승사업회(추진)] [장귀래리기운동본부] [노건투]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장애해방을여는 사람들] [이재연 정용준] [법민연 광주전남연대] 조대희 황선하 [6.15  
공동선] [박영주 조영배 김수동민회] 오호일 [광주전남대학교학생연] 권민영 [광주전남연대] [진보정치포럼] 이대행 김은아 김태진 소재설 고영봉 김현정 김선미 정진아  
[광주전남청년연대] 나인우 정태연 [광주지역일반노동자] 조용근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조] 이한석 김학준 김병두 [한국비정규직노동연대] 이남진 [전파노동자회]  
광진희 [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통일노조] 장문태 권영국 이우영 이이영 오민애 송기호 정현순 조영선 [서울동부비정규직노동연대] [비정규직노동자세상만들기] 송경동  
[광주교사실천연대] [금속법률원] 송영섭 조이현주 탁선호 장석우 정준영 박주영 권영태 박현숙 문경근 이기범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 김태욱 김두현 최영주 김선민 [금속법률원  
충남사무소] 김유정 이재용진 박상수 [민주노동법률원] 강영구 김진 김재희 하태현 정은정 박미숙 권두섭 [민주노동법률원 광주사무소] 김성진 박철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이시강민 김우현 [JME] 정영철 이복남 유영갑 신선식 오종록 김경철 유민호 김인복 정창자 김현정 정경태 한상규 이규학 김갑규 박석영 전승옥 신태연 김서준 안정 김상국  
강동영 이재태 최의철 김동은 주선하 김길수 한명숙 이정남 이상계 이형설 소경선 정은수 허진균 강경와 조기명 배종석 최성준 김상국 김량 백운석 김상일 권영권 정태상 최재국  
문상환 이영호 김유경 김원국 김성호 박유하 박재주 문종준 이금순 장정인 임자아 김계숙 한명숙 박정숙 임정자 신현수 김가영 탁발민 김미정 이옥란 정종태 김영실 김진영  
김현범 양영수 정성일 박광윤 박정철 김중태 김재우 유현식 차용석 염순자 윤서우 김경주 박희규 신숙녀 전병일 고윤희 박석영 정용성 김동우 강성진 유병일 황인준 김성룡  
조용은 도경진 고재성 고해진 김승곤 김현진 조원현 장관호 박상옥 박동일 김주희 민경관 이흥철 서동원 김경주 김용철 김기완 정태술 장정숙 위보환 정일중 조경애 박성관  
류현식 오덕훈 김효순 강성준 김준 김양 이남일